

## 희곡우체통 6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희곡우체통에 배달된 작품 중에 또 한 편을 함께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희곡우체국의 7번째 낭송공연작은 <헤어드라이어>이다.

<헤어드라이어>는 우리 사회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폭력은 겁이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 작품 속에는 겁의 모습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차라리 겁에 의한 폭력에 매개된, 읊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폭력에 대항하는 작가의 방식은 또 다른 형태로 ‘폭력적’이다. 작가는 미용실이라는 공간 속으로 이 모든 폭력의 상처를 마치 우격다짐하듯이 밀어 넣는다. 논리적으로 미용실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그 안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이 작품은 비약과 모순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드라이어>의 매력은 이 우격다짐에 있다. 이 우격다짐은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부조리하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할 것이다. 조현병, 우울증 등 등장인물들이 겪는 정신적 혼란은 이 우격다짐을 이해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분열되고 짓눌리고 찢긴 세계가 미용실이다.

미용실은 날카로운 가위로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폭력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씻고, 다듬어, 아름답게 만드는 공간이다. 폭력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우격다짐. 이것이 <헤어드라이어> 속에서 우리가 읽은 것이다. 배우의 목소리로 읽었을 때, 과연 이 작품이 지닌 비약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낭송공연이 기다려진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조만수